

문화의 새로운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w Concept of Culture

오정석, 윤호창
SCCA

Oh Jeong-Seok, Youn Ho-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ulture
&Contents Association

요약

근대 산업사회에서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 이르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세의 신 중심 사상에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의 중심이동은 이제 생명 복제와 같은 과학 기술 발달과 함께 인류가 신의 영역에 점차 가까워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의 흐름에서도 인류 문화의 진화는 더디게만 느껴진다. 생명 경시, 종교 전쟁, 환경 파괴,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제도 등은 우리가 바라는 인류공영의 발목을 옥죄는 듯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대의 문화 개념과 정체성을 되짚어 보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그릇에 담길만한 문화의 개념을 '물'의 특성을 가진 'SeaCricl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의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People's Interest about culture is increasing to reach in today's knowledge based society on age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Conversion of human based idea arrived in step that human through scientific technique development such as life reproduction approaches gradually in God's sacred ground. Evolution of human's culture was proceeded slowly in current of such radical change. Life underestimate, religion war, pollution etc. are seeming to keep away human development. This treatise wishes to redefine concept of suitable culture in new terminology of 'SeaCricle' that have characteristic of water at 21C's New Age.

I. 서론

문화에 대해 논할 때 그 대상은 '사람'이 개입된 모든 활동과 제도이다. 자연에서 인간에 의한 인공이 가미된 모든 것이 문화의 연구대상이며 주제이다. 인간의 육체적, 의식적 진화와 함께 문화는 진화하여 왔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진 문화개념은 1950년대에 이미 100여 가지가 넘게 열거될 정도였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각 분야로 특화되어(compartmentalization) 특정한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담론의 체계모니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난해함에도 그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상징 행위로서의 문화'이다. 본 논문은 문화 개념의 흐름과 현대문화의 특징을 통해 현재까지의 문화 개념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상징행위로서의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며, '물'이 가지는 특성으로 문화를 새롭게 인식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문화 개념의 흐름

1.1 문화의 기원과 발달

원시의 인간은 직립 보행 이후 자유로워진 팔로 개

인과 집단의 생존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석기의 제작과 불의 이용이 그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 두뇌의 발달이 이루어져 언어가 발생되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문화적 동물'로서 발전하게 된다.

1.2 전통적인 문화의 개념

서양에서의 문화개념은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자연상태'와 '문화상태'로 대비되어 이해되었다. 이때 문화란 "인위적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란 개념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타이러(Edward B. Tyler)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동양적 의미로서의 문화는 「주역」의 예로 볼때 '천문(天文)을 보아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인문(人文)을 살펴 천하를 변화시킨다.' 즉, 문화(文化)란 문(文)으로 다스리고 바르게 가르친다는 문치교화(文治敎化)로서 이상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행위로 볼수 있다. 우리말에서 문화는 문명 개화(文明開化)를 줄여서 쓴 말이다. 문화는 문채(文采)가 나고 밝다는 의미의 문명과 인지(人智)가 열려 사물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개화 두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말에서 문화는 다소간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문명과 문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3 현대 문화의 특성

21세기가 시작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와 있다. 이제는 문화간 접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문화가 혼합되고 전세계 상호 의존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운송 및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해 오늘날의 세계는 5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¹⁾

1) Waters, Malcom, Gloablization, London, 1995.

1) 세계화

최근 윌리히 베크는 세계화 개념을 '세계성 Globalitat', '세계화Globalisierung', 그리고 '세계화주의Globalismus'로 구분했는데, 여기서 '세계화'는 항상 변화하는 네트워크화 과정을 의미한다.²⁾ '세계화 주의'는 베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가리킨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세계시장은 전세계 변화의 유일한 추진력이자 척도이며, 세계화의 여타 모든 차원들, 특히 정치적 차원을 규정짓는 것이다.³⁾ 시대 흐름에 따른 문화 개념의 변화의 예로서 현대의 글로벌 문화개념으로서 유기적 문화관이 등장하게 된다. 즉, 인류의 운명은 민족국가의 엄격한 경계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된 지속적인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며, 이 자연은 수많은 가늘고 중첩되고 끊어진 선들을 통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⁴⁾

2) 정보화

소비대중문화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정보화라는 세계적 흐름 때문이다. 인공위성과 컴퓨터, 정보통신의 발달은 멀티미디어라는 통합매체의 방식으로 전 세계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매스미디어는 역사상 그 어느 문화전파의 영향력보다도 강한 힘으로 전지구적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3) 개인화와 다원주의

현대는 개인화를 통해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신앙, 정치, 이념, 세계관, 문화 등, 다양하게 제공되는 체계들은 객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가 되었다. 이른바 다원주의로 나아

2) Joana Breidenbach, Ina Zukrigl, "Tanz der Kulturen", 인성기역, 2003.

3) Beck Ulrich, "Was ist Globalisierung?"(Frankfurt a.M.), 1997.

4) Kaplan, Robert D. "The Ends of the Earth. A Journey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NewYork, 1996, pp.162.

가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다원주의는 한 마디로 '취향과 가치의 다양화'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문화에 대한 정의와 접근은 시대에 따라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큰 흐름은 '인간은 상징적 존재이며 문화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인간이 만든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상징 행위로서 인식하고 그 의미를 화이트와 카시러, 화이트헤드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상징 행위로서의 문화

화이트(Leslie A. White)는 인간을 상징력을 가진 동물로 파악한다. 상징력이란 외계 外界의 사물과 사건들(things and events)에 자유롭게, 또한 인위적으로 의미를 창작하고, 결정하며, 부여하는 능력이며, 또한 그런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징을 한다는 것(symboling)은 곧 의미를 창조하고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간을 모든 다른 종의 동물들과 구분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물과 사건들(this class of things and events)이다. 즉 이러한 현상 現象들이 바로 모든 문명 文明 또는 모든 문화 文化들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고 있다.

독일 출생의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는 원래 신칸트학파인 마르부르크학파에 속하였고 그 입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20세기 초반의 근세철학자로서, 그의 철학의 핵심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통일적인 구성원리를, ① 인간정신의 '상징기능(象徵機能)'에서 찾아내고 ② 또한 이것을 정적·고정적인 형식이 아닌, 역동적·생성적인 '노작(勞作)'으로 포착한 점 등이다.⁵⁾ 카시러에 있어서 심불(상징)이란 인간의 정신이 그것을 통해서 외부 세계 혹은 내부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하는 그리고 의미를 지닌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⁶⁾ 카시러는 인간은 언어

형식, 예술적 심상, 신화적 상징 혹은 종교적 의식에 깊게 둘러싸여 있으므로 이러한 인위적 매개물의 개입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다고 말한다.⁷⁾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는 '감각 현시'(Sense-Presentation)⁸⁾를 '인과적 효과성'(causal efficacy)⁹⁾보다 고등한 유기체¹⁰⁾가 가지는 경험으로 가정한다. 또한 그는 "인간의 모든 상징활동은 아무리 피상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상징적 연관의 고리, 즉 상이한 양태로 직접 인지되는 지각들을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그는 상징의 정의를 "인간의 정신은 그 경험의 일부 구성요소가 다른 어떤 구성요소에 대한 의식, 믿음, 정서, 용도 등을 이끌어낼 때 상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의 구성요소는 '상징'이고, 후자의 구성요소는 그 상징의 '의미'를 이룬다."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류는 상징적 전이의 정교한 체계에 의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를 감지하는 기적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는 각각의 상징적 전이가 부적절한 특성을 자의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위험한 사실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¹²⁾라는 말로 상징 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화이트헤드는 인간과 상징활동과의 불가분성을 통해, 그리고 그런 행위가 나뉘는 위험성을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 (New Haven: Yale Univ.Press, 1944), 최명관 역, p.4.

7) ibid. p.50.

8) 감각적 성질들, 예컨대 색, 소리, 맛 등에 대한 직접적 지각을 일컫는 말로 '현시적 직접성'(presentational immediacy)의 지각이라 부른다.

9) 현시적 직접성의 결과를 낳는 일련의 물리적/생리적 활동으로서의 지각작용.

10) 근원적 형태의 지각경험으로 형이상학적 의미의 유기체이며 무기물로 분류하는 것들도 유기체로 간주한다.

11) A.N.화이트헤드,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 문창옥 역, 동과서, 2003, p.19.

12) ibid. p.103.

5)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6)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An Introduction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3. 물의 관점에서 본 문화

'물'의 관점으로서의 문화란 우리의 자연에서 쉽게 접하는 물이 가지는 상징적 특성을 추출하여 그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이 문화의 근본적 개념을 재정의하여 보려는 시도이다.

문화의 개념을 '땅'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한 경작, 생명 유지의 개념에서 이제 '물'이라는 전혀 상반된 대상의 상징성으로 새롭게 옷 입혀 보려는 이유는, 첫째, 현대 과학문명의 빠른 진보와 그에 따르는 다양하고도 풍요로운 혜택과 더불어 그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인식과 윤리 의식, 또는 다원성과 상대성에 따른 종교간의 끝없는 분쟁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쉬움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둘째, 현재의 시대적 특성에서의 문화 개념이란 과거에 비해 큰 변화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각기 분파되어 각각의 학문에 종속된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본디 문화 개념의 뿌리인 '땅'의 상징성이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무의식적으로 문화 개념에 대한 관점 변화의 개연성조차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그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 셋째,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21세기의 변화를 맞을 수 있는 시대적 그릇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3.1 바다의 기원, 우주

우주의 크기에 대한 가설중 유력한 것 하나는 적어도 5차원 이상의 고차공간속에서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품 우주론'이다. 우주의 정확한 '3차원 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연구 프로젝트인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SDSS)는 별이 대량으로 몰려있는 은하 20만개의 분포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 우주는 은하의 분포밀도가 다르며 거품처럼 은하가 몰려서 존재하는 사실을 더욱 정밀하게 확인했다.¹³⁾

3.2 물의 성질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물을 가리켜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으며 시인 헷세는 '생명의 소리'라 표현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지구와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약 35억년 전에 지구상에서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는 혐기성 세균(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세균)에서 원시 생명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최초의 세포 형성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는 세포외막(구획)의 발달이다. 원시 생명체는 적당한 수온에다 결코 마르지 않는, 영양분이 풍부한 물에 담겨있었다. 지구상의 생물은 이러한 초창기 생명체로부터 영겁의 세월동안 진화하고 분화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진화를 바다에서 시작하였다. 바다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생명의 터전이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 아이가 잉태되어 자라나는 형상과 유사하다. 파라켈수스는 물이 모든 세계와 모든 창조물들의 자궁이라고 이야기한다.¹⁴⁾ 지구상의 바다의 기원에 대한 최근의 유력한 가설은 우주로부터 물이 유입되었다는 내용이다.

물의 순환은 지구 표면을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이상의 물리적 상태(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물의 독특한 능력의 결과이다. 물의 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 환경의 역동적 본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물은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의 순환체로 작용한다. 끊임없이 변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반복하는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만 생명은 지속될 수 있다. 이 순환 과정은 따뜻한 물을 차가운 바다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성의 열을 재분배하게 된다.

세포의 작동을 원활히 하고, 물질과 분자조직을 이리저리 이동시키고, 생명유지를 위한 화학작용을 촉진하는 것은 바로 물이며 필요한 곳으로 영양분을 나

13) 교도(共同)통신(일본), 2003. 10. 30.

14) Philip Ball, "A biography of Water" Curtis Brown Group:London, 강윤재 역, 1999.

르는 자양액이자 쓰레기를 치우는 정화액이다. 식물에서 물은 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하다.¹⁵⁾

3.3 물의 상징성

물의 속성은 북, 검정색, 수성, 차가움, 유동성이다. 이것은 도교의 수동적이고 여성적 원리인 음(陰), 그리고 달과 결합되어 있다. 중국 전통에서 물은 근본적인 창조 물질, 즉, '생명 물질(life substance)'이다.

물은 신비스럽고, 감추어져 있으며, 수동적이고, 차갑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솟아난다. 바슐라르의 말처럼, 그것은 '완전히 여성적인' 물질이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세례받은 마리아의 자궁으로 묘사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에는 성스러운 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물에 대한 상징으로는 다양성 또는 불안정(얼음, 눈, 증기, 증발, 끓음), 마심(생명 유지와 생명 소생), 씻음(정화), 재배(생산), 자유자재로 쏟아지고 흐름(자유성, 부드러움, 여성성), 돌을 닦게 함(힘), 잘 스며들(친화성), 반사시킴(자아인식, 반성), 재앙(홍수), 약함 등이다. 또한 정화성(성결, 거룩), 부활(물과 성령), 변영, 여성, 모략 또는 지혜, 영혼의 만족, 평강, 회복, 영원성(순환) 등이다.¹⁶⁾ 이처럼 물은 하나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넘어 법률, 예술, 그리고 고유한 역사와 지형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에 가깝다.¹⁷⁾ 또한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여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물의 상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성'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의 주기는 여성의 주기이며 생물학적 여성성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순환 반복의 연속이다.¹⁸⁾ 어떤 의미에

서 여성은 영원한 시간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니 바슐라르의 언급을 보면 "여성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지속 속에서 달려가고 남성의 시계는 급격한 움직임의 역동성을 지닌다.¹⁹⁾ 마가렛 리드는 여성성의 특질로 간주되는 보살핌의 능력, 타인의 욕구에 민감한 소통 능력을 되살려야 힘을 강조하였다.²⁰⁾ 현 상황에서 선각자적 논의들은 모두 소통과 보살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²¹⁾

여성성에 관한 시대적 중요성은 미래학자 존 나이 스비트와 스티븐 코비의 주장에 설명될 수 있다. 존 나이스비트는 21세기 키워드로 '세계화, 기술, 여성'을 말하고 있다.²²⁾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성공의 관건은 바로 창의성이며 이 창의성의 발현은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상호의존적 리더십'이란 배경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함에 기초한 수평적 사고로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능력이며 따라서 기존 산업 사회에서 적용되었던 수직적 명령과 통제는 그 효율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잠재성을 끌어내는 것을 나이스비트의 말을 빌어 '첨단 감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연유는 남성과는 달리 목표 지향적이 아닌 과정 중심적인 성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이를 양육하며 그 아이의 육성 및 재능을 개발해주는 과정을 통해 습득된 능력으로도 볼 수 있다. '통제'가 아버지의 성향이라고 본다면 '상호의존성'은 어머니의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호의존성은 21세기의 네트워크 사회에서 필수적 요소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상 물의 여러 상징 형태를 5가지로 압축해 보면 '생명성, 순환성, 다양성, 신성성, 여성성' 등이다. 이

15) Phil Ball, "A biography of Water" Curtis Brown Group:London, 강윤재 역, 1999.

16) 개역한글성경

17) Philip Ball, "A biography of Water" Curtis Brown Group:London, 강윤재 역, 1999.

18) Natalie Angier, "WOMAN: An Intimate Geography" (Houghton Mifflin Co, 1999), 이한음 역, pp.15.

19) C.G. 바슐라르, "몽상의 시학" 김현 역, 홍성사, 1978. p.7.

20) 한국 문화인류학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03, pp.8.

21) Giddens, Anthony,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공역, 서울:새물결, 1996.

22) KBS 스페셜, "미래의 코드, 여성", 2004.

제 이런 상징이 담은 의미를 가진 새로운 용어인 'SeaCircle'를 설명하고자 한다.

4. 문화의 새로운 이름 짓기 'SeaCircle'

성경상의 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전 에덴 동산에서 하였던 노동 행위이자 신이 부여하였던 사명은 바로 동물들의 '이름 지어주기'였다.²³⁾ 갖가지 형태와 습성을 가진 움직이는 물체(동·식물)들이 아담을 통해 하나의 의미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즉, 이름 지어진다는 것은 존재의 확립이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 표출되고 정의됨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²⁴⁾ 그 예로서 웰빙족을 들 수 있다. 예전부터 건강을 좇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지만 '웰빙족'이라고 이름 지어줌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더 많은 구성원을 획득하며 사회적으로 '웰빙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김춘수의 시 '꽃'에서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던 대상이 이름이 부여됨으로서 '의미있는 존재'로 부활한다.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이누이트(Inuit)사회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 이름을 소유했던 영혼의 정체성(identity of soul)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⁵⁾ 결국 이름 짓기 행위는 곧 어떤 대상에 대한 의미 또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상징 행위로 볼 수 있다.

1) SeaCircle

바다의 거품을 통해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거품 안에 생명이 거했다는 사실과 우주의 존재에 관한 '대구조론'에서 각각의 거품은 하나의 우주이며 생명이 거한다는 사실은 모두 '거품'이라는 원형 상태 안에서 생명성을 나타내고 있다.

Circle 의 사전적 의미는 '원주, 권(圈), 궤도(orbit), 순환, 계(界)' 등으로 SeaCircle 이란 바다가

가지는 순환성과 생명성,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자정 능력 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해하면 된다. 즉, SeaCircle은 생명의 탄생과 유지, 순환성을 나타낸다. 또한 바다의 모태는 우주이며 우주는 신성(神性)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는 신성성을 가진다.

2) Open mind

"君子는 和而不同하고 小人은 同而不和"라고 했다. 이는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말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남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한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또는 "조화를 이루되 附和雷同(부화뇌동), 주견 없이 남의 말에 이유 없이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은 높은데서 흘러내려 수평을 이룬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사고는 포용력을 지닌다. 이런 포용력은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고 창의성을 낳는다. 여성성은 이런 특징들을 대변해준다.

3) Spirit

C.A. 반 퍼슨은 "문화는 고정된 상태나 종착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 혹은 '과제'로 보아야 한다. 문화에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 필연성을 전제로 하는 규칙이다. '문화가 발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발전의 기준은 '도덕성의 규칙' 혹은 '윤리성의 규칙'에 맞추어진다"라고 주장하였다. 문화 진화의 모체(母體)인 spirit은 바다의 자정 능력과 같이 '문화'라는 커다란 계(界) 또는 매트릭스 안에서 생명 유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기존 문화 개념과의 비교

기존의 문화에 대한 비교는 아래의 표와 같다.

23) 창2:19, 개역한글성경

24) 서일윤, "G-웰빙족의 발견", 한국여가문화학회 학술대회, 2004, p.73.

25) 김용옥과 모리스 고들리에의 대담, 문화일보, 2003, 11. 14.

[표 1] 기존 문화 개념과의 비교²⁶⁾

분류	Culture	SeaCircle
상징	Maintain	Generate
	↑	↑
목적	Life	Life
	↑	↑
형태	Cultivate	Create
	↑	↑
기원	Land	Sea

기존의 문화 개념이 생활을 유지하는 관점이었다면 SeaCircle은 생산과 산출의 개념이며 생명 유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III. 결론

전통과 혁신, 재현적 세력과 창조적 세력 사이에는 간단없는 투쟁이 있다. 이 이원성은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⁷⁾ 부조화는 그 자신과의 조화 속에 있으며, 반대물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그것은 반대속의 조화이다.²⁸⁾ 기존 문화의 개념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서의 새로운 의미 부여로 만들어지는 차이는 대립이 아닌 조화를 향한 발걸음이 된다. 본 논문은 기존의 문화 개념이 가진 어원적 의미(땅)를 물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인간 진화의 역사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상징 체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진행해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21세기 문화 개념으로서 물이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과 생명

의 소중함, 신성성의 의미를 인식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인간 본연의 가치 상실을 되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물이 가진 상징성으로 생명성, 순환성, 다양성, 신성성, 여성성이란 다섯 가지의 상징을 다시 SeaCircle, Open Mind, Spirit이라는 세 가지 용어로 통합·상징화하였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따로 분리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사회·문화적 양태(樣態)의 적절성에 대한 하나의 판별식으로 사용되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개역 한글성경
- [2] 교도(共同)통신(일본), 2003. 10. 30.
- [3] 김용옥과 모리스 고들리에 대담, 문화일보, 2003, 11. 14.
- [4]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 [5] 서일윤, "G-웰빙족의 발견", 한국여가문화학회 학술대회, 2004.
- [6] 윤호창, "What is Culture", SUVA 강의, 2003.
- [7] 한국 문화인류학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03.
- [8] Beck Ulrich, "Was ist Globalisierung?" (Frankfurt a.M.), 1997.
- [9] Alfred North Whitehead, "Symbolism : its Meaning and Effect", 문창옥 역, 동과서, 2003.
- [10] C.G. 바슐라르, "몽상의 시학" 김현 역, 흥성사, 1978.
- [11]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 (New Haven: Yale Univ.Press, 1944), 최명관 역
- [12] Giddens, Anthony,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공역, 서울:새물결.
- [13] Joana Breidenbach, Ina Zukrigl, "Tanz der Kulturen", 인성기역, 2003.
- [14] Kaplan, Robert D. "The Ends of the Earth. A Journey at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NewYork, 1996.
- [15] KBS 스페셜, "미래의 코드, 여성", 2004.
- [16] Natalie Angier, "WOMAN: An Intimate Geography" (Houghton Mifflin Co, 1999), 이한음 역
- [17] Philip Ball, "A biography of Water" Curtis Brown Group:London, 강운계 역, 1999.
- [18] Waters, Malcom, Gloablization, London, 1995.

26) 윤호창, "What is Culture", SUVA 강의, 2003.

27)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 (New Haven: Yale Univ.Press, 1944), 최명관 역, p.343.

28) ibid. p.343.